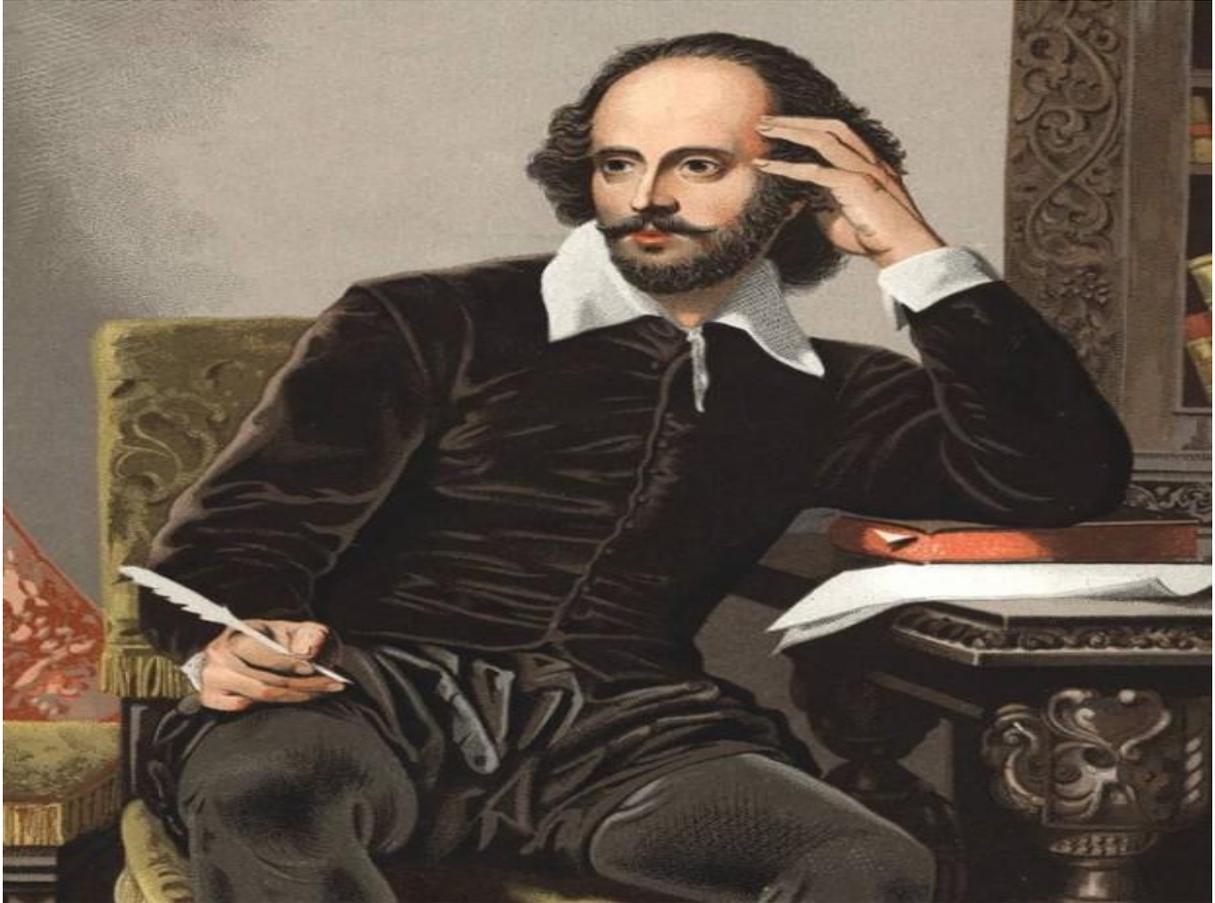


셰익스피어의 문학의 영향력



개요

서론

문학의 영향력 -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바탕으로

본론

1. 희곡에 미친 영향력
2. 그림에 미친 영향력
3. 영화계에 미친 영향력

결론

서론

문학은 인간이 끊임없이 사고하고 조직하여 만들어낸 문화장르다. 문화는 시대별로 유행을 타기 마련인데 셰익스피어의 4대비극 햄릿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햄릿의 사색적 성격은 19세기의 낭만주의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특히 당시 낭만파 음악가인 쇼팽, 슈베르트, 리스트의 작품의 영향을 받아, 햄릿은 당대 최고의 희곡으로 대중들에게 다가왔으나 19세기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의 발달이 안되어 먼 타 대륙에까지 미치지 못하였다. 문학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쓰여지는 종류와 방식이 달라진다.

대표적으로 두 시대를 넘나들은 문학자로 ‘셰익스피어’가 있다. 16세기 후반 엘리자베스 1세의 통치기에 태어난 그는 90년대 런던에 페스트균이 창궐하던 무렵 극작가로서 자신을 알리기 시작하였고, ‘비너스와 아도니스’, ‘루크리스의 겁탈’을 통하여 후원자인 사우샘프턴 백작을 만나게 되었다. 그 이후 셰익스피어는 인간에 대한 예리한 관찰력과 서정성이 돋보이는 작품들을 연거푸 발표하였으며, 낭만적인 문학적 요소들을 적절히 배치하여 쓰여진 그의 희극들은 런던을 아울러 영국 역사상 사랑을 소재로 한 문학작품 중 가장 잘 녹여져 서민들에게 흘러들었다.

엘리자베스의 시대가 저무는 시대에 들어서자, 인간의 고뇌와 절망과 죽음을 주제로 다룬 셰익스피어의 희곡 속에는 작가의 우울한 심사와 절망적인 세계관이 담겨있다고 재평가받았다. 시대에 공존한 시민들의 정서 역시 불안과 우울의 심도가 깊다는 작가의 희곡 작품 속에서 돋보였다.

엘리자베스를 이은 제임스 1세가 ‘그룹즈 오브 더 체임버’를 셰익스피어에게 수여했다는 점과 사우샘프턴 백작의 석방을 주된 행위로 셰익스피어의 극작 활동을 지원했다는 것은 스튜어트 가문이 얼마나 연극을 사랑했는지 엿볼 수 있다. 이것은 당시 영국의 희곡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역사적 사실이다. 제임스 1세 이후, 긴장감을 증폭시켜 나가던 대작극에서 가정비극, 풍자희극, 감상적인 희비극 혹은 퇴폐적인 비극으로 그 축이 바뀌었다. 기록에 따르면 로맨스극인 템페스트는 극작가가 귀족들을 위한 공연만 하였다고 하지만, 평민들에게 가정의 사랑 패러다임을 바꾸었을만큼 영향을 미쳤다. 이처럼 셰익스피어의 희곡은 연극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인간 내면에 도사린 다양한 면모들을 극적이면서도 시적으로 잘 드러내 보인 뛰어난 운문 문학의 절정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오늘날 셰익스피어의 관련된 논문이 매년 집필될 정도로 그의 문학작품을 해석하려는 시도가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으며, 앤서니 홀든의 말에 의하면 “포스트모더니스트, 페미니스트, 탈식민주의론자 등이 저마다 입맛에 맞게 셰익스피어를 난도질한지도 오래다.” 라고 정의내릴 정도로 셰익스피어의

영향은 다양한 사상과 신념을 가진 지식인들을 만들어냈다. 또한 현재까지 셰익스피어에 관한 연구, 저술, 공연 등 산업·문화활동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본 소논문 본론에서는 셰익스피어의 작품이 문학장르 중 희곡, 그림, 영화계에 어느정도의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본론

1. 희곡에 미친 영향력

1910년대 배우로 활동한 극작가 현철이 일본의 극작가 쓰보우치 쇼요의 삶과 죽음의 가치를 다룬 작품들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당대 최고의 잡지<개벽>에 1921년 5월호부터 1922년 12월호까지 모두 19회에 걸쳐 쓰보우치 쇼요의 일본어 번역을 토대로한 셰익스피어의 <햄릿>을 하믈레트라는 제목으로 완역한 점은 현철이 각본 불모지의 상황에 번역 작품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잘 보여주고 있으며 무엇보다 조선 사회의 문명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극을 선정했다는 점이 참으로 값지다. 아래 <그림 1>은 2017년에 한국에서 공연한 하믈레트의 공연 포스터이다.



<그림 1> 하믈레트 표지

이어 창작된 현진건의 <고향> 김소월의 <진달래꽃> 염상섭의 <표본실의 청개구리> 등 한국 근대문학사의 대표작들이 이 잡지에 실렸다는 사실만으로도 문학잡지의 위상을 실감할수 있다. 이렇게 잡지 <개벽>의 후원과 번역자 현철의 노력에 힘입어 셰익스피어는 식민지 조선에서 예의” 현란한 수사학 " 으로 젊은 지식청년들의 의식을 점령하였으며 <표본실의 청개구리>의 지식청년이 그렇듯이, 그들은 ‘ 번역된 하믈레트 '를 빌려 자신들의 고뇌를 표현하였고, 카페에 등지를 튼 ‘하믈레트형 인간'들이 자신들을 부르는, 실체를 알 수 없는 ‘유령'의 손짓에 이끌려 분노를 호소하기도 했다. 이처럼 하믈레트의

고뇌에서 비롯된 조선문학의 사고방식은 이전과 차원이 달라졌으며 특히 유교적 도덕성을 강요한 문화에서 인간의 자유로운 생각으로 변화한 사실은 셰익스피어의 영향력을 다시금 경탄을 하도록 만든다.

17세기 초에 창작된 <햄릿>은 우리의 가슴에 가장 깊은 감명을 새겨놓을 수 있는 작품의 하나다. <햄릿>이 현재 희곡을 읽고있는 우리에게 주는 단 한가지는 뭐니뭐니해도 작품속의 빛나는 대사이다. 대사의 시어미는 음악과 이미지가 결합된 아름다움이며 어떤 때는 불꽃의 언어로, 어떤 때는 장미꽃의 언어로, 어떤 때는 칼날의 언어로, 살아 움직이는 웃음의 언어가 5월의 꽃밭을 이룬다. 언어에 의한 비극정신이 그를 영원히 시인으로 만든 실증을 <햄릿>에서 엿볼수 있으며 극작가가 서거한 지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지금도 그가 창작한 햄릿은 우리의 가슴 속에 살아 있다. 왜냐하면 항상 인간의 고뇌 <햄릿>에서 새로운 자기 자신의 어떤 잘못을 찾아내게 되기 때문이다.

현대 사회에서 나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의 잘못을 가장 잘 깨닫게 할 수 있는 방법은 SNS 라고 생각한다. 21세기에 들며 SNS가 영향력이 커지며 이전에는 쉽게 거론되지 않았던 주제들이 개방적으로 이야기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가고 있다.

<햄릿>의 인간고뇌를 다룬 내용들이 미디어 세계로 흘러 들어가며 대중이 쉽게 접근할수 있게되자, 이에 감명받거나 교훈을 얻은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으며 심지어 <햄릿>의 특정 구절로 인하여 감명받아 새로운 삶을 지내고 있는 사람도 있다.

1610년에서 1611년 사이에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단독적으로 집필한 마지막 희곡 <템페스트>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작품이다. 이 말은 즉, 작품이 내포하고 있는 내용이 시대를 넘나들며 문제제기를 한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템페스트를 희곡의 특성을 고려하여 충분히 상상하며 꼼꼼히 읽을 때 무려 사회적 관계까지 고려하여 읽을 수 있다. 셰익스피어의 템페스트는 현재 공연업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연극이 그 예 이다.

극단 목화의 오태석 연극 연출가는 독특한 해석력을 바탕으로 셰익스피어의 창작 의도를

삼국유사와 결합시키는데 성공하였으며 국내외 재공연을 통해 완성도와 명쾌함을 높이고 있는 작품으로, 고전의 재미, 운율을 느낄 수 있는 가족 음악극의 묘미, 전통 음악과 춤을 만날 수 있는 연극 무대가 모두 살아있다는 점이 가장 눈여겨볼 접근지점 이다.

기본적으로 셰익스피어의 원작과 삼국유사의 스토리텔링을 바탕으로 한 무대공연으로서의 연극을 즐길 수 있고, 가족 음악극의 경쾌한 현장감을 추구할 수도 있으며, 동작이 크고 역동적인 탈춤의 춤사위, 업바운스의 강렬한 리듬감을 몸으로 표현한 안무와 움직임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다.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도 좋아하는 이유가 이런 선택권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다양한 메시지와 교훈을 연출한 오태석 연출가의 능력이 돋보인 것은 사실이지만 연극인으로서 인생을 무대에 바친 셰익스피어의 템페스트가 결국 현재 연극계에도 창의적인 작품으로 재 탄생 되고 있으며 지금도 템페스트를 기억하는 관객과 연극을 찾으려는 관객이 존재할 정도로 템페스트의 핵심 키워드 “용서”가 인간사회에 깊은 감동을 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볼 수 있다.

셰익스피어의 인물들은 곧 극음악 작품의 경계를 넘어 19-20세기의 웅장함이 강조된 오케스트라의 음악으로 거듭나게 되는데, 그 중심에는 낭만주의 시대의 음악적 가치관이 자리잡고 있다. 특히 프랑스 낭만주의 시대의 음악가들은 창작을 통해 영감의 원천 이었던 셰익스피어와 그 작품의 가치를 증명하였는데 그 중 베를리오즈, 리스트, 차이코프스키는 개인적 철학과 해석이 들어간 <햄릿>을 발표했으며 이들의 작품은 각각 <트리스티아> <교향시> <환상서곡>으로 불린다. <트리스티아>는 합창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3악장의 곡으로, 각각 “죽음의 명상”의 , “오페리아의 죽음” “햄릿의 죽음”으로 정의되며 죽음의 관점에서 바라본 햄릿의 시사성을 음악으로 전달한다. 교향시의 창시자인 리스트는 햄릿의 인간상에 몰두하며 고뇌, 사랑, 복수의 과정을 많은 주제의 단일 악장으로 구조화 시켰다. 리스트의 <햄릿>은 내적 갈등으로 나약함이 강조되는 보편적인 견해와는 달리 의지와 결단력을 갖춘 인물로 표현되는데 이는 갈등과 복수를 나타내는 상반된 악곡

구조로 확인한다. 예를들어 리스트의 햄릿은 크게 프롤로그와 에필로그 성격을 갖는 두개의 부분과 이 사이에 세분화된 세 개의 부분이 중첩되는 구조를 지니는데 그중 두 번째 부분인 햄릿의 갈등과 복수의 악곡 구조를 보면 복수의 악곡이 갈등의 악곡 보다 두 배 가까이 길고 강렬하게 표현된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햄릿의 결연한 의지와 결단력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반대로 오페리아의 존재감은 미미하여 햄릿을 부각시키는 일종의 **음악적 장치**로 사용되며 이는 여성에 대한 부정적 사고를 표출하는 햄릿의 화성(和聲)과 자주 부딪힌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2. 그림에 미친 영향력

셰익스피어의 작품은 미술계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



<그림 2> 비너스와 아도니스

<그림 2>는 셰익스피어의 <비너스와 아도니스>는 그림이다. 17세기 벨기에 궁정화가였던 페테르 파울 루벤스는 신화의 세계를 표현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능력은 특히 <비너스와 아도니스>에서 빛을 발하게 되는데, 그는 고대 로마 시인 오비디우스가 쓴 “변신 이야기”의 내용을 토대로 ‘터치아노’의 그림을 창조해 그렸다. 큐피드의 화살을 맞은 비너스는 잘생긴 사냥꾼 아도니스를 보자마자 사랑에

빠졌다. 사랑하는 남자와 함께하기 위해 취미도 아닌 사냥을 취미로 삼았다. 어느날 함께 갈 수 없는 일이 생기자 비너스는 아도니스에게 위험을 경고하며 절대 사냥을 가지 말라고 한다. 루벤스는 바로 이 장면을 거대한 화폭에 담았다. 아도니스는 여자의 말을 듣지않고 기어이 사냥을 떠났다가 멧돼지에게 죽임을 당했다. 이처럼 셰익스피어가 무모함이란 단어를 핵심가치로 쓴 글을 루벤스가 다시금 그림으로 그려내 현재의 우리에게 직-간접적으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아시아 셰익스피어의 무대미술은 최근까지 서양 무대미술의 경향을 그대로 쫓아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말하자면 서양의 현대 무대미술이 일반적으로 그러하듯이 건축적, 장식적, 사실주의적 시각을 지양하고 단순화, 입체화, 양식화 상징화를 추구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의 우수한 평가를 받는 무대미술은 이러한 경향을 띠고 있다. 아시아 셰익스피어의 무대미술은 서양 무대미술의 경향에 따라 장식적 화려함이 강조되는 무대미술로부터 시작됐다. 일본에서는 최초로 완전한 공연으로 평가받고 있는 문예협회의 <베니스의 상인>과 <햄릿>의 공연사진을 보면 사실성과 함께 헨리 어빙의 공연에서 보는 화려한 장식성이 엿보이고, 일본의 영화배우 이치가와 사단지의 <베니스의 상인>의 공연사진을 보면 앞의 공연보다 더 치밀하게 역사적 양식과 장식성이 강한 무대미술에 대한 연구가 이뤄졌음을 알 수 있다.

한국에서 셰익스피어의 무대미술의 1960년대에 와서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신협과 극협의 <햄릿> <오셀로>의 무대미술은 사실적 기초 위에 무대장치를 단순화한 것으로 이러한 경향은 그대로 대한민국 극장의 초창기를 담당했던 서울특별시 중구 예장동에 위치한 드라마센터 개관공연의 <햄릿>(1962)까지 이어진다. 아래 <그림 3>개관공연 햄릿의 무대 사진



<그림 3> 드라마 센터 개관공연 햄릿의 장면

3. 영화에 미친 영향력

셰익스피어는 영화계에서조차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셰익스피어의 리어왕을 재해석한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의 <란>은 관객들이 셰익스피어 작품을 또 다른 방식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었고 라이언 킹을 제작한 세계적인 애니메이션감독 룩 민코프 역시 <햄릿>의 구도를 이용하여 심바의 육체적 여정과 햄릿의 정신적 여정의 삶을 동일시하다시피 만들었으며 청춘영화의 시작을 알린 길 정거의 <내가 널 사랑할 수 없는 10가지 이유>를 본 관객 대다수가 셰익스피어의 오셀로를 읽었다고 말할 정도로 파급력이 강하였으며 여성서사가 절실히 환영받는 현대시대에 여성의 시점으로 다시쓰여진 <영화> 오필리아는 큰 흥행을 끌었다.



<영화> 오필리아 포스터

존 매든의 <셰익스피어 인 러브>는 셰익스피어의 사랑의 여정을 담아낸 영화로 로미오와 줄리엣이 무대에 올려지는 그날 셰익스피어의 결혼식이 올려지는 로맨틱한 영화로써 로미오와 줄리엣속의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평을 들으며 심도깊은 문학요소와 계획성을 확인할수 있다. 알 파치노와 제레미 아이언스 주연의 영화'베니스의 상인'의 삽입곡은 조셀린 푸크가 셰익스피어의 시에 초기 르네상스 음악 분위기를 되살려 멋진 영화 음악을 작곡하였으며 수세기가 지났어도 셰익스피어의 감성을 예술계 곳곳에서

언제든지 느낄 수 있다는 것이 그의 문화적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



<영화> 셰익스피어 인 러브 포스터

또한 셰익스피어는 단순 극작가로서의 영향력을 행사한 것 뿐만이 아니라 언어 영역에서도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바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널리 쓰고 있는 특히 몇 년 전부터 방송에서도 자주 쓰여 잘 알려진 ‘Swagger’라는 단어를 만들었으며 이 단어는 아주 많은 사랑을 받은 그의 희극 한여름밤의 꿈 3장 1막에서 처음으로 등장하였다. 이 외에도 셰익스피어는 글을 쓰며 약 12,000개의 단어를 만들었으며 그중 절반은 현재도 사용 중이다. 그가 만든 단어는 단순히 새로운 언어를 창조해 낸 것 뿐 아니라, 명사를 동사화시키고 동사를 형용사화하고, 전에는 절대 함께 쓰인 적 없는 단어를 연결하여 사용하는 등 영어 어휘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말할수 있겠다.

결론

문학이 낳은 세계최고의 작가 셰익스피어의 작품은 단순히 시장에 돈으로써 가치를 매겨지는 수준이 아니다. 셰익스피어의 문학작품들은 희곡,소설,연극,음악,오페라 등,예술업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해주었다.

현대사회로 들어서자 예술을 소비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났으며 더욱이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고도의 발전을 이루며 공연계는 문학과 더욱 깊은 관계를 맺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잠들었있던 명(名)희곡들이 연극,오페라,뮤지컬을 통하여 본격적으로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하였고 시대별 작가의 마음과 연관되어있는 감성들을 포함한 희곡들이 공연을 통하여 관객에게 직접적으로 작품의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함으로 대중들에게 극한의 카타르시스를 선물하였고 많은 이들이 공연을 통하여 마음의 정화와 삶의 재진환을 경험하는것은 부인할수없는 사실이다.

셰익스피어의 문학작품은 현재까지도 예술시장에 영향을 미치고있는데, 대단한 사실은 그의 작품 다수가 지금까지 수많은 감독과 연출가들에 의해 분해되고 또 각색 되었지만, 한 작품에 내포된 교훈과 시대의 메시지가 워낙 많다보니, 현재도 작품의 연구가 문학계열,인문계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연구된 자료에 의해서 또다시 예술로 다시금 승화되고 있다.

지금은 전문가들만이 연구하는 시대에서 가 아닌 젊은 학생들이 직접 작품을 분석하고 무대화시켜 공연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말은 즉 더 이상 어른들이 제작을 주도하는 시대가 아니란 것 을 뜻하며 결국 문학이 젊은이들의 예술열정을 이끌어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학은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를 쥐락벼락한 강력한 무기는 아니지만, 개인과 공동체에 정서적인 변화와 인생의 재발견을 가능케해준 "고마운 존재"다.